

나레이티브를 통한 유아의 애착 표상 측정의 타당화 연구 : 애착 안정성,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Preschool Children : Links to Attachment Security
and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

박경자(Kyung Ja Park)¹⁾

권연희(Yeon Hee Kwon)²⁾

ABSTRACT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40 36- to 52-month-old upper-middle class children was analyzed in relation to their attachment security and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s. Instruments were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the Attachment Q-set, and the Vocabulary test of the K-WIPPSI.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s were observed at home during semi-structured problem-solving situations.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classified Korean preschoolers from these upper-middle class families as securely attached to their mothers. Girls' representation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 was more secure than boys. Preschool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vocabulary ability. Attachment security correlated positively with preschool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s related significantly to preschool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Key Words : 애착 표상(attachment), 애착 안정성(attachment security),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 (mother-child interaction behaviors).

I. 서론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이다. 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느낌, 태도, 행동의 조직을 발달시킨다(Sroufe & Fleeson,

* 2000년 연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Kyung Ja Par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kjpark@yonsei.ac.kr

1986). 애착 이론은 부모-유아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데, Bowlby(1969, 1982)는 영아가 주 양육자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해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를 형성한다는 내적 실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내적 실행 모델은 영아기와 초기 아동기 동안 아동이 구성하는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 사건에 대한 아동의 해석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아와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인 실행 모델을 가지므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긍정적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한 유아는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b),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이를 토대로 더 유능하게 행동하였다(Verschuere & Marcoen, 1999). 반면, 불안정한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가치 없게 느껴, 부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져 이후의 관계에서 불신, 분노, 공격, 무감각 등의 특징을 보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 유아들은 또한 대인간 새로운 상황에서 과잉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분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Solomon & George, 1999).

내적 실행 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최근 들어 애착 연구는 영아기를 넘어서 아동기와 성인기로 확장되는데, 애착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발달 시기에서 애착 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낯선 상황 절차(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Main & Cassidy,

1988)과 애착 Q-set(Waters, 1987)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유아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하여 이 시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Cicchetti, Cummings, Greenberg, & Marvin, 1990).

유아의 애착 관계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추론하거나 투사적 검사에 대한 아동의 반응으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나레이티브 측정을 통해 개인의 애착 대상에 대한 표상과 내적 실행 모델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Main과 동료들(Main & Solomon, 1986, 1990; Main, Kaplan, & Cassidy, 1985)은 언어나 다른 표상적 과정을 통해 아동과 성인의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애착 표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분리 불안 검사(Separation Anxiety Test)를 통해 애착 주제인 부모와의 분리 장면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토대로 애착 관계의 개인차를 측정하였다. Bretherton과 동료들(Bretherton, 1985; Bretherton, Ridgway & Cassidy, 1990)에 따르면 취학전기 초기에 유아는 정신적 표상의 상징적 형태를 사용하여 개념적으로 지식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유아의 개념적 구조와 과정은 아동에게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스크립트를 발달시키도록 질문하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취학전기 유아가 나레이티브를 통해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보았다. 더욱이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 모델은 관계의 실질적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Bretherton, 1985; Main 등, 1985), 표상의 개인차는 아동이 애착 대상과의 실질적 행동에서 보이는 개인차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olomon & George, 1999). Solomon과 George(1999)는 3, 4세 유아는 언어 발달과 상징적 조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표상적 수준에서 애착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표상을 통해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유아가 나타내는 믿음과 바람에 근거한 표상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Bretherton과 Oppenheim(2003)은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유아의 애착 관계 및 이와 관련된 유아의 내면세계를 알 수 있으나, 유아가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정서적으로 몰입될 때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기대되는 사건, 또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표상하는 등 유아의 실제 경험과 다른 것을 더 잘 기억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이야기 완성은 유아의 개인적인 통찰을 나타내므로 애착 관계 이외에 다른 이야기 기술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나타난 유아의 애착과 관련된 표상이 유아의 바람이나 사회적 규준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유아의 실제 경험에 의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측정된 유아의 애착 표상이 이 시기 유아의 애착의 질을 타당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표상을 통한 애착 안정성 측정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행동의 관찰을 통해 측정된 애착 유형과 애착 표상간의 일치 정도를 통해 애착 표상 측정의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Bretherton 등(1990)은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격리-재결합 과정에서 아동을 관찰한 결과와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측정된 애착 표상 간 비교를 통해 이야기 완성 기법이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Ziegenhain과 Jacobsen(1999)은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Main과 Cassidy(1988)의 절차에 따른 아동의 행동적 애착 패턴 결과와 격리 이야기를 통해 측정된 표상적 애착

측정 간에 81.3%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치율을 보고하였다. Bar-Haim, Sutton, Fox와 Marvin(2000)은 애착의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58개월에 격리불안검사(SAT)를 통해 측정된 애착 표상 결과와 수정된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측정된 애착 행동이 일치함을 보고하면서, 애착의 정신적 표상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의 행동 분류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신혜원(2004) 역시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에서 보이는 애착 행동 특성과 애착 표상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애착 유형별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여 애착의 실제 행동과 이야기 표상에서 공통된 부분과 상호 보완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애착 Q-set은 Waters와 Deane(1985)가 제안한 방법으로 영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어머니나 관찰자가 분류함으로써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영, 유아기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Symons, Clark, Isaksen & Marshall, 1998; Teti & McGourty, 1996; Teti, Nakagawa, Das, & Wirth, 1991; Vaughn, Strayer, Jacques, Trudel, & Seifer, 1991; Waters & Deane, 1985). 애착 Q-set를 통해 측정된 안정성 점수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 행동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유아의 사교성과 정적 상관, 안전부절 못하거나 관계에 저항하는 부정적 정서성과 부적적으로 관련되었다. Symons 등(1998)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애착 Q-set로 측정된 애착 안정성이 취학 전기 동안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 유아기 애착 관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아 애착 행동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결과와는 달리 애착 Q-set을 통한 애착 안정성은 애착 표상과 약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Bretherton 등(1990)의 연구에서는 애착 표상 점수

와 애착 Q-set을 통한 애착 안정성 점수가 경계선 수준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Oppenheim (1997)은 애착 표상과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적 표상으로 측정된 애착 유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착 Q-set에 의한 애착 안정성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애착 행동과 애착 표상을 살펴본 연구(신혜원, 2004)는 진행되었으나 애착 Q-set과 애착 표상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애착 Q-set 안정성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적 표상을 통한 애착 측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시의 행동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안정된 애착 표상을 지닌 유아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 내적 실행 모델을 지니므로(Bretherton & Munholland, 1999; Cassidy, 1990; Cicchetti 등, 1990),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바람직하고 유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며, 이들의 어머니 역시 유아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Stevenson-Hinde와 Shouldice(1995)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아기 애착 유형과 영아기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을 살펴본 결과 안정 애착 아동의 어머니는 불안정 아동의 어머니보다 긍정적 기분, 조화, 아동에 대한 즐거움, 편안한 가정 분위기를 더 많이 제공하고, 유아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정 애착 유아의 어머니는 상호작용시 유아의 행동을 덜 모니터링하고 덜 계획적이며 과제에 대해 민감한 틀을 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은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유아의 애착 표상은 유아의 자아 지각이나 행동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5세 때 아동의 애착 표상이 1년 뒤인 6세 때 아동의 내면화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예언하였고(Warren, Emde, & Sroufe, 2000), Oppenheim, Emde와 Warren(1997)은 4-5세 동안 유아의 애착 표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아동의 행동 문제 및 어머니의 낮은 디스트레스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이민주(2001)는 유아의 애착 표상이 남아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자아 지각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나레이티브를 통해 측정된 애착 표상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검토해 보고, 애착 표상과 애착 Q-set 안정성 점수, 그리고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적 표상을 통해 측정된 애착 표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Solomon과 George(1999)는 유아의 언어적 발달이 표상적 자극에 대한 유아의 반응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애착 표상 측정과 언어 발달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통해 애착 표상을 측정할 때에는 유아의 언어적 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 표상에 있어 유아의 어휘 능력을 통제하고 애착 표상과 애착 안정성, 그리고 어머니 및 유아의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만 3-4세 유아의 애착 표상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유아의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와 애착 표상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만 3, 4세 유아(36개월~52개월, M=43개월, SD=3.93) 40명(남아 19명, 여아 2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서 선정된 43명 중 자료가 누락된 아동 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인구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버지(100%)와 어머니(92.5%)가 대학 졸업 이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가정의 연 수입은 절반 정도가 4천만원 이상이었으며(50%),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45%로 가장 많고, 어머니는 60%정도가 전업주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직업을 고려해 볼 때 중상류층 가정의 특성을 보였다. 연구 대상 유아 중 26명(65%)은 낮 시간 동안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고, 4명(10%)은 조부모, 4명(10%)은 가정부, 1명(2.5%)은 보육 기관, 5명(12.5%)은 주 양육자들 이상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애착 표상

(1)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유아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등(1990)이 개발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면접자가 유아에게 애착 관련 주제의 이야기 도입부를 제시한

후, 유아로 하여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형/언니, 남아(여아)로 구성된 인형 가족을 사용하여 주어진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사용되는 이야기 주제는 ‘생일파티’, ‘주스를 엮질렀어요’, ‘귀신’, ‘무릎을 다쳤어요’, ‘격리’, ‘재결합’의 총 6가지이다. 이중 ‘생일파티’ 이야기는 유아가 면접 절차를 이해하였는지 살펴보는 연습 과제이고, 나머지 5가지 이야기가 유아의 애착 표상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이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는 유아에게 면접자와 유아가 함께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할 것이며, 면접자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유아는 면접자의 말에 이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과제를 시작한다. 면접자는 유아에게 어머니, 아버지, 형/언니, 할머니로 구성된 가족 인형을 소개하였는데, 등장 인형 중 형/언니 인형과 주인공 유아 인형은 면접 유아와 동성(同姓)의 인형을 사용하였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각 이야기가 제시되고 면접자는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줄래?”라고 요청한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의 모든 면접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한 뒤, 전사하였다. 유아의 언어적, 행동적 반응, 인형의 움직임과 상대적인 위치, 유아의 정서적 반응 등을 자세하게 전사한 후 이를 토대로 다음의 지침에 따라 애착 유형을 분석하였다.

(2) 애착 유형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Golby, Bretherton, Winn과 Page(1995)의 코딩 지침에 근거하여 유아의 이야기 내용과 구조, 정서적 톤을 모두 고려하여 각 이야기의 내용과 과정, 일관성에 대한 코딩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이야기 내용은 친사회적, 부정적, 훈육/처벌의 3가

지로 분류되고, 이야기 과정(story telling process)에는 말하기를 회피하기, 이상하고 부정적 사건으로 이야기하기, 비조직적으로 이야기하기로 나뉘어 진다. 이야기의 일관성 정도는 매우 일관된, 비교적 일관된, 일관적이지 않은 것의 3가지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Golby 등(1995)의 코딩 기록지를 토대로 Bretherton, Prentiss와 Ridgeway(1990)가 제안한 분류 준거에 따라 유아의 애착 유형을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불안-회피, 불안-비조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유아가 5가지 이야기 모두에 대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일관되게 응답하고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면 '매우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한 두 개의 이야기에 대해 응답하기를 회피거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하면 '비교적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 강한 회피 반응을 보이면 '불안-회피' 애착 유형으로,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조직적이고 이상하게 왜곡된 반응을 보이면 '불안-비조직' 애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한 애착 유형은 통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Maslin, Bretherton과 Morgan(1986)이 사용한 방식대로 '매우 안정(4)', '비교적 안정(3)', '비교적 불안-회피, 비교적 불안-저항(2)', '매우 불안-회피, 매우 불안-저항, 불안-비조직(1)'의 4점 척도로 전환하여 평정되었다.

연구의 절차로 먼저 각 이야기의 내용과 구조, 과정, 일관성 평정 및 애착 유형 분류를 위하여 원도구의 지침을 숙지하였고, 연구 대상 중 5명에 대해 아동발달전문가 1인과 석사 과정의 연구원이 함께 평정하고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때 이야기 내용과 구조, 과정, 일관성 평정 및 애착 유형 분류에서 두 명의 평정자가 대부분 일

치하였으며 불일치한 경우에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연구 대상의 애착 유형은 석사 과정의 연구원이 분류하였다.

2) 유아의 애착 안정성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Waters(1987)의 애착 Q-set(AQS) 한국판(이 영, 박경자, 나유미, 1997)으로 측정하였다. 애착 Q-set은 90개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머니는 유아의 행동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서부터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까지 9개의 파일에 각각 10개씩 카드를 분류한다. 이와 같이 분류된 문항들은 각각 9점(가장 특징적인 유아 행동)에서부터 1점(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행동)까지 점수를 받게 된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된 한국판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준거점수와 연구 대상 유아에 대한 카드 분류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된다.

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으로 해결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제시된 4가지 과제는 어머니와 남녀 유아 모두에게 흥미 있는 것으로 유아가 혼자하기에는 어려워워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Erickson, Sroufe와 Egeland(1985)가 고안한 과제를 근거로 토막 짜기, 바퀴 달린 사물의 이름 말하기, 도형 블록 맞추기, 미로 찾기였다. 과제의 모든 해결 상황은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Erickson 등(1985)의 교수전략 평정 척도(Teaching Strategies Rating Scale)에 근거하여 상호 작용 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

을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행동 특성은 정서적 지지 표현, 자율성 존중, 구조화/한계 설정, 적대심 표현,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의 6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하였다. 각각의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박경자·권연희, 2002)에 제시되었다.

유아의 행동 특성은 다음의 8개 항목으로 평정하였다.

- ① 인내력 :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의 를 기울이는 정도
- ② 과제에 대한 열정 : 과제에 흥미를 보이면 서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 수행에 임하는 정도
- ③ 어머니에 대한 부정성 : 어머니에 대해 분노나 적대감, 부정적 행동을 표현하는 정도
- ④ 어머니의 과제 지시에 따르는 순응성 : 어머니의 제안을 기꺼이 경청하고 주의 깊게 그 제안에 따르는 정도
- ⑤ 과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 : 과제를 수행하면서 아동 스스로 성공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정도
- ⑥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 : 어머니가 직접 해주거나 도와주기를 바라는 정도
- ⑦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정서 표현 : 어머니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행복한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
- ⑧ 어머니에 대한 회피 : 어머니와 상호작용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

각 하위 항목에 대한 평가는 1점에서 7점까지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행동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25%인 10쌍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대해 아

동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평정한 점수를 기초로 각 항목별로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 행동은 평균 .89(범위 .80~1.00), 유아 행동은 평균 .92(범위 .90~1.00)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4) 어휘 검사

유아의 어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혜원 등(1995)이 표준화된 한국웍슬러 유아지능검사(K-WIPPSI)의 언어성 소검사 중 ‘어휘’ 검사의 환산 점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어휘’ 검사의 환산 점수 범위는 1점~18점이다.

3. 연구 절차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과제가 만 3, 4세 유아에게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 3세 유아 3명을 대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한 관찰실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서는 대상 유아의 가정을 두 번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 방문 시 유아의 어휘 검사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두 번째 방문 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와 애착 Q-set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애착 표상과 어휘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와 유아의 어휘 능력을 통제한

후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예비 분석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연구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어휘 능력은 18점 만점에 평균 12.9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여 연구 대상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어휘 능력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남아($M=12.00$)보다 여아($M=13.62$)가 더 높은 어휘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완성 과제로 측정된 유아의 애착 표상 안정성 점수는 4점 만점에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유아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 표상 안정성 점수는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아($M=2.42$)보다 여아($M=3.29$)가 더 안정된 표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Q-set으로 측정된 애착 안정성 점수는 -1 ~ 1점의 범위 중 .51정도로 나타나 애착 표상으로 측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 유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표 1〉 유아의 성에 따른 어휘 능력, 애착 표상, 애착 안정성,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시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점수 범위	전체(N=40)	남(n=19)	여(n=21)	t
		M(SD)	M(SD)	M(SD)	
어휘 능력	1 ~ 18점	12.85(2.42)	12.00(2.36)	13.62(2.27)	2.21*
애착 표상	1 ~ 4점	2.88(.88)	2.42(1.02)	3.29(.47)	-3.40**
애착 Q-set 안정성	-1 ~ 1점	.51(.18)	.48(.18)	.54(.19)	-.92
어머니 행동					
정서적 지지 표현		5.06(1.20)	4.83(1.29)	5.27(1.10)	-1.18
자율성 존중		5.02(1.06)	4.95(.81)	2.10(1.27)	-.45
구조화/한계 설정	1 ~ 7점	4.68(1.27)	4.24(1.24)	5.03(1.21)	-2.03
적대심 표현		1.35(.66)	1.53(.84)	1.19(.40)	1.58
과제지시의 적절성		4.89(1.06)	4.37(.91)	5.37(.98)	-3.34**
유아에 대한 신뢰		4.83(1.25)	4.34(1.05)	5.27(1.28)	-2.49*
아동 행동					
인내력		5.12(1.01)	4.77(1.07)	5.43(.87)	-2.14*
과제에 대한 열정		4.87(1.04)	4.56(1.00)	5.14(1.01)	-1.82
어머니에 대한 부정성		1.65(.89)	2.00(1.11)	1.33(.48)	2.43*
어머니 과제 지시에 대한 순응성	1 ~ 7점	4.77(1.38)	4.65(1.26)	4.87(1.50)	-.50
과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		4.80(1.11)	4.53(1.06)	5.05(1.12)	-1.51
어머니의 도움에 대한 의존성		3.64(1.04)	3.61(1.08)	3.67(1.03)	-.17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정서 표현		4.22(1.22)	3.81(.80)	4.59(1.42)	-2.18*
어머니에 대한 회피		1.94(1.19)	2.42(1.43)	1.51(.72)	2.51*

* $p < .05$ ** $p < .01$

나타났다. 애착 Q-set 방법으로 측정된 애착 안정성 점수는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자 상호작용 시 어머니 행동을 살펴보면 1~7점의 점수 범위에서 아동에게 적대심 표현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은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인 반면, 그 외 긍정적 행동은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제 지시의 적절성(남아 $M=4.37$; 여아 $M=5.37$)과 유아에 대한 신뢰(남아 $M=4.34$; 여아 $M=5.27$)에서 여아 어머니가 남아 어머니보다 더 높게 평정되었다. 즉, 여아의 어머니가 과제 해결을 위한 유아와의 상호 작용 시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더 적절히 제공하고, 유아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모-자 상호 작용 시 아동의 행동에서 어머니에 대한 부정성(남아 $M=2.00$; 여아 $M=1.33$), 어머니에 대한 회피(남아 $M=2.42$; 여아 $M=1.51$)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평정되었다. 즉, 과제 해결을 위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어머니에게 부정적 정서나 행동을 더 많이 표현하고, 어머니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인내력(남아 $M=4.77$; 여아 $M=5.27$)과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정서 표현(남아 $M=3.81$; 여아 $M=4.59$)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면서 여아는 남아보다 더 과제를 해결하고자 주의하고, 어머니에게 긍정적 관심을 더 많이 표현하고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였다.

2)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

나레이티브 표상을 통해 측정된 유아의 애착 유형을 살펴보면 '매우 안정'된 애착 유형이 17.5% ($n=7$), '비교적 안정'된 애착 유형 67.5% ($n=27$)

로 안정 애착 유형이 85%이었고, '불안-회피' 애착 유형은 2.5% ($n=1$), '불안-비조직' 애착 유형은 12.5% ($n=5$)로 불안정 유형이 15% 정도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중상류층 가정에서 눈덩이 표집 방법에 의해 임의 선정된 3-4세 유아는 대부분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어휘 능력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유아의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데 어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휘 능력과 애착 표상 점수 간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32 ($p<.05$)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휘 능력이 높은 유아가 애착 표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이후 유아의 애착 표상과 관련된 통계 분석에서는 유아의 어휘 능력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4)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

애착 Q-set를 통해 산출된 애착 안정성 점수와 어머니 -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애착 Q-set 안정성 점수는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시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어머니가 유아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가질수록 어머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 시 유아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고, 아동 행동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적절한 지시를 제공하고 유아가 잘 해 낼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또한 애착 안정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집중하고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 수행에 임하며, 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에 잘

〈표 2〉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과의 적률상관계수

	어머니 행동						아동 행동							
	정서적 지지 표현	자율성 존중	구조화/한계 설정	적개심 표현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	과제에 대한 열정	어머니에 대한 부정성	과제지시에 대한 순응성	과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	도움에 대한 의존성	긍정적 정서 표현	어머니에 대한 회피	
애착 안정성	.40**	.16	.46**	-.14	.49***	.47**	.50***	.42**	-.26	.43**	.43**	-.17	.44**	-.13

** $p < .01$ *** $p < .001$

순응하고, 과제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상호 작용동안 어머니에게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

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이야기 완성과제로 측정된 애착 표상이 유아의 애착 관계의 질을 타당하게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애착 Q-set 점수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에서 유아의 애착 표상 점수가 어휘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애착 점수간의 상관은 유아의 어휘 능력을 통제한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애착 Q-set 안정성 점수와 애착 표상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 = .36, p < .05$). 즉, 애착 Q-set을 통해 측정된 애착 안정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것

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 유아의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이야기 완성 과제로 측정된 애착 표상 점수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시 어머니 및 유아의 행동과의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애착 표상 점수는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표 3 참조). 즉,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표상하는 유아의 어머니는 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 작용 시 유아의 행동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분노나 실망, 거부와 같은 적대심을 덜 표현하고 유아가 과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고 유아와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경계선 수준이긴 하지만

〈표 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 애착 표상 점수간의 부분 상관 계수(어휘 능력 통제)

	어머니 행동						아동 행동							
	정서적 지지 표현	자율성 존중	구조화/한계 설정	적개심 표현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	과제에 대한 열정	어머니에 대한 부정성	과제지시에 대한 순응성	과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	도움에 대한 의존성	긍정적 정서 표현	어머니에 대한 회피	
애착 표상	.29*	.06	.38*	-.35*	.54***	.38*	.52***	.55***	-.43**	.31*	.47**	-.12	.37*	-.3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에 대한 정서적 지지도 더 많이 표현하였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유아는 어머니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시 과제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 수행에 임하며, 어머니에 대하여 분노나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덜 할 뿐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성공감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회피하는 행동을 덜 보였다. 또한 경계선 수준에서 어머니의 지시에 더 잘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측정한 애착 표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착 표상과 애착 Q-set으로 측정된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완성 과제로 측정한 만 3-4세 유아의 애착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안정 애착 85%, 불안-회피 애착 2.5%, 불안-비조직 애착 유형 12.5%로 분류되었다. 미국의 중류층 가정의 만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Bretherton 등(1990)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이 65.5%, 불안-회피 애착이 20.7%, 불안-비조직 애착이 13.8%이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안정 애착 유형의 비율이 높고, 불안-회피 애착 유형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류층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한 김숙령(2001)의 연구나, 영아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에 따라 애착유형을 구분한 나유미(1996)의 연구에서도 다른 문화권보다 우리나라 영, 유아에게서 안정 유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상류층 가정의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애착 유형을 구분한 신혜원(2004)의 연구에서는 안정된 애착 유형이 63.6%로 나타나 안정된 애착 유형의 분포가 본 연구 자료의 분포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 유형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고려한 다양한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유형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야기 완성 과제로 측정한 애착 표상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안정적인 애착 표상을 나타내어, 애착 표상의 성차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유영미·이영, 2001; 민성혜 등, 2004; Oppenheim 등, 1997; Page & Bretherton, 1994)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유아기 자녀의 성에 따라 상호작용을 다르게 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권연희(2003)의 연구에서 취학 전 어머니는 상호 작용 시 남아보다 여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지도할 뿐 아니라 부정적 통제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자료에서도 여아 어머니가 남아 어머니보다 과제 해결과 관련된 힌트를 더 적절히 제공하고 유아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과 같은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유아기 어머니는 상호 작용 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민감하고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을 많이 보이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이런 차이가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에 영향을 주어 표상으로 측정된 애착 안정성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애착 Q-set을 통한 애착 안정성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Verschuieren 등(Verschuieren, Marcoen & Schoefs, 1996)은 여아의 애착 표상이 남아보다 안정적이라는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에 대한 대화에 능숙하여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수행에 더 적절한 반응을 보여 나타난 차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어휘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유아의 어휘 능력이 애착 표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측정된 애착 표상에서의 성에 따른 차이는 실질적인 애착 관계에서의 차이라기보다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표상의 측정 방법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애착 표상의 성차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표상은 어휘 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다른 선행 연구들(Bretherton 등, 1990; Solomon & George, 1999; Verschuieren & Marcoen, 1999)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Verschuieren과 Marcoen(1999)은 ‘불안-회피’ 애착 집단으로 분류되는 유아의 애착 표상 측정에 유아의 언어 능력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에 민감한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표상을 측정할 때 더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유아의 애착 표상 측정이 어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도구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는 언어적 표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톤, 이야기의 실연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반영하여 애착 유형을 분류하므로 유아의 애착 표상에서의 차이가 언어 능력의 개인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유아의 사건 표상과 언어 발달이 인지적·사회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맥락에서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한다는 Lucariello 등

(Lucariello, Kyratzis, & Engel, 1986)의 연구를 고려할 때, 안정된 애착 관계를 발달시키는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맥락에서 형성된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이 유아의 언어적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애착 Q-set으로 측정된 애착 안정성 점수와 애착 표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즉, 애착 Q-set 분류에서 안정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안정된 표상을 나타내었다. 애착 Q-set 방법이 유아의 애착 특성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이영 등, 1997; Symons 등, 1998; Teti & McGourty, 1996; Teti, 1991; Vaughn 등, 1991; Waters & Deane, 1985), 애착 안정성과 애착 표상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한 애착 표상 방법은 3-4세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을 반영하며 유아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애착 표상 간의 상관은 $.36(p<.05)$ 으로, 이 두 애착 측정의 방법이 공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Bretherton 등(1990)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의 애착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여 애착 표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Ziegenhain과 Jacobsen(1999)의 연구에서 애착 행동 유형과 애착 표상 간에 81.3%의 일치를 발견한 것이나, Bretherton 등(1990)의 연구에서 격리-재결합 절차로 살펴본 애착 유형과 애착 표상 간에 $.49(p<.01)$ 의 상관을 보고한 것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 애착 Q-set 안정성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는 중간 정도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Bretherton 등, 1990; Oppenheim, 1997)과는 달리 애착 Q-set 안정성과 애착 표상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행동 관찰을 통해 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것에 비하여 애착 표상과의 상관의 정도가 약한 것을 고려할 때 애착 Q-set와 표상을 통한 애착 측정에서 애착 관계를 보여주는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Oppenheim과 Waters(1995)는 애착 Q-set 측정과 같은 행동에 근거한 측정 방법들은 아동의 안전-기반 행동과 감각 운동적 실행 모델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표상을 통한 애착 측정과 애착 Q-set 측정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애착 측정 방법 및 내적 실행 모델을 이해하는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애착 표상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주었다. 즉,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유아의 어머니는 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 작용 시 유아 행동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과제해결에 적절한 지시를 제공하고, 유아에게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고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반면, 적대심과 같은 부적절한 정서는 덜 표현하였다. 또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 시 어머니의 지시에 잘 순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뿐 아니라 어머니를 회피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덜 보이고 부정적인 표현도 덜 나타내었다. 또한 안정적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유아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 해결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Bretherton과 Munholland(1999), Cassidy(1990), Cicchetti 등(1990)은 안정된 애착 표상을 지닌 유아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지니므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 시 적절한 상호작용을 보일 것이

라고 하였다. 실제로 Warren 등(2000)의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표상 결과가 내면화 행동 문제를 가장 잘 예언하였으며, 이민주(2001)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애착 표상을 보인 남아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된다고 지각하였다. 유아가 안정된 표상을 보일수록 과제해결을 위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시 과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인내를 보이고 어머니에게 정서 및 행동 차원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애착 표상과 유아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안정된 애착 표상을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 역시 유아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Stevenson-Hinde와 Shouldice(199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반구조화된 상황이라는 하였으나 자연스러운 어머니-유아 간 상호 작용 행동과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한 애착 측정 간의 유의한 상관관은 표상을 통한 애착 측정 방법이 유아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가정방문을 허락한 어머니와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중상류층이었으며, 아동에게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성이 대부분의 유아가 안정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대상 표집 수가 적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애착 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애착 Q-set 측정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련성을 통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애착 표상 측정의 타당성을 규명한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몇몇 연구(민성혜 등, 2004; 신혜원, 2004; Bretherton 등, 1990)를 제외하고는 만 3세

유아를 포함한 애착 표상 연구가 부족하여 만 3세 유아의 애착 표상 측정의 사용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만 3세 유아도 나레이티브를 통해 자신의 애착 관계를 표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나레이티브를 통한 애착 표상 측정의 유용성을 보여준 것에 의의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한 애착 표상 측정은 만 3-4세 유아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애착 Q-set나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 행동의 관찰과 같은 행동적 측면과 함께 애착의 표상적 측면을 고려하면 유아기 애착 관계에 대하여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령(2001). 유아의 정신적 표상에 의거한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 *유아교육연구*, 21(3), 95-117.
- 나유미(200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민성혜 · 신혜원 · 이영(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 발달. *아동학회지*, 25(6), 153-170.
- 박경자 · 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 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 결혼만족도, 자녀양육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혜원 · 광금주 · 박광배(1995). K-WPPSI 지침서.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신혜원(2004). 3-4세 유아의 애착 행동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미 · 이 영(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63-74.
- 이민주(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 영 · 박경자 ·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Bar-Haim, Y., Sutton, D. B., Fox, N. A., & Marvin, R. S.(2000). Stability and change of attachment at 14, 24, and 58 months of age : Behavior, representation, and life ev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2), 381-388.
- Bowlby(1969/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89-114). NY : The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 Oppenheim, D.(2003).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redirections about meaning, In R. M.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and parent-child narratives*(pp. 55-80). Oxford university press.
- Bretherton, I., Prentiss, C., & Ridgeway, D.(1990). Family relationships as represented in the story-

- completion task at thirty-seven and fifty-four months of age. In I. Bretherton, & M. W. Watson (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pp. 85-106). San Francisco : Jossey-Ba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93-308). Chicago Press.
- Cassidy, J.(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attachment and the self in young childr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87-119). Chicago Press.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T., & Marvin, R. S.(1990). An organization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3-49).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rickson, M. F., Sroufe, I A., & Egeland, B.(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1-2)*, Serial No. 209.
- Golby, B., Bretherton, I., Winn, L., & Page, T.(1995). *Coding manual for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 Lucariello, J., Krytatzis, A., & Engel, S.(1986). Event representation, context, and language. In K. Nelson (ed.), *Event knowledge*(pp. 137-160). NY : Lawrence Erlbaum.
-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six :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ain, M., & Solomon, J.(1986). Discovery of an insecure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 Procedures,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havior. In M. Yogman & T. B. Brazelton(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Norwood, NJ : Ablex.
- Main, M., & Solomon, J.(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121-16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slin, C., Bretherton, I., & Morgan, G. A.(1986). *Influence of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caffolding on mastery motiv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L.A.
- Oppenheim, D.(1997). The attachment doll-play interview for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681-697.
- Oppenheim, D., Emde, R. N., & Warren, S. L.(1997).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 Their development and associations with child and mother adaptation. *Child Development, 68*, 127-138.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b).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84-294.
- Oppenheim, D., & Waters, H. S.(1985). Narrative processes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 Issues of

- development and assessment.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 New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197-215.
- Solomon, J., & George, C.(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pp. 287-316). NY : The Guilford Press.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1995). Maternal interaction and self-reports related to attachment classifications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Symons, D., Clark, S., Isaksen, G., & Marshall, J. (1998). Stability of Q-sort attachment security from age two to fiv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4), 785-792.
- Teti, D. M., & McGourty, S.(1996). Using mothers versus trained observers in assessing children's secure base behavior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67*, 597-605.
- Teti, D. M., Nakagawa, M., Das, R., & Wirth, O.(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orts of the attachment Q-sort.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0-447.
- Vaughn, B. E., Strayer, F. F., Jacques, M., Trudel, M., & Seifer, R.(1991). Maternal descriptions of two- and three-year-old children : A comparison of attachment Q-sorts in two socio-cultural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14*, 249-271.
- Verschuere, K., & Marcoen, A.(1999). Representations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s :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83-201.
- Verschuere, K., Marcoen, A., & Schoefs, V.(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2511.
- Warren, S. L., Emde, R. N., & Sroufe, L. A.(2000). Internal representations : Predicting anxiety from children's play narrativ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1), 100-107.
- Waters, E.(1987). Attachment Behavior Q-set(version 3.0). Unpublished man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s, New York.
- Waters, E., & Deane, K. E.(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41-65.
- Ziegenhain, U., & Jacobsen, T.(1999). Assessing children's representational attachment models : Links to mother-child attachment quality in infancy and child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1), 22-30.